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6월 14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시온 성과 같은 교회 / 찬송가 210(신) 245(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39번(시편 95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어려운 일 당할 때 / 찬송가 543(신) 342(구)

기도 / 한규철 집사

성경 봉독 / 로마서 3장 10-24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다시 제자리로 / 박화신 목사

찬송 / 값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 찬송가 211(신) 346(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바다와 하늘의 주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 1.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가 깨어진 상태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깊은 문제입니다.
- 2. 무너진 질서**는 우리의 삶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말과 관계와 선택은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 3. 복음**은 우리에게 더 노력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 설교 요약

같은 삶, 다른 나라

눅 9:57-62

1.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갑자기 세상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하루도 세상 사람들의 하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치열하게 일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며, 몸의 피곤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리에서는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현실에서 벗어난 특별한 공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똑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2. 그러나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삶을 바라보고 살아내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있었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 익숙한 가치관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족을 버리고 일상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3.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처럼, 더 이상 두 나라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다른 소망으로, 같은 현실을 지나가지만 다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당당히 살아갑니다.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 삶의 중요한 결정(돈, 시간, 관계, 미래)을 할 때 누구의 나라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자리(가정, 직장, 교회, 관계)에 보내신 이유가 단지 '버티기 위해서' 가 아니라면, 그곳에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 나는 신앙을 '언젠가 천국 가기 위한 준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현실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오는 금요일, 6월 19일 저녁 8시에 사도행전 종강(27,28장)합니다. 함께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신실한 은혜의 삶이 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5. 6월 목장 모임을 6월 27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연합 목장 모임으로 박래석 집사님 자택에서 모입니다. 집을 오픈해 주시는 박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7. 강승우 선교사님께 선교 후원금(\$1,000)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예배 위원

안 내	조창	박승화		
기 도	한정임(7)	한규철(14)	한미숙(21)	조창(28)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로마서 3장 23-24절

은혜로 얻은 의, 새로운 삶의 시작

-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 로마서 3:23-24 -

이 말씀의 교훈



1. 우리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는 용서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